

## 2. 美 通商 攻勢의 現況과 原因

- (焦點) 최근 美國은 韓國을 포함한 先進開途國에 대한 通商 攻勢를 強化시키고 있음
  - 10대 급성장 시장에 대한 집중 공략 등을 담은 通商政策 確定하고 先進開途國에 대한 知的 財産權, 技術 障壁, 政府 調達 部門에서의 通商 壓力 擴大
  -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하여는 통신 시장과 육류 시장 開放, 자동차의 關稅 引下와 特消稅 體系 改善, 식품 유통기한 연장 등을 要求
- (原因)
  - 對外 依存度의 深化 속에, 확대되고 있는 美國 貿易收支 赤字
  - 尖端 産業에 있어서의 比較優位 維持와 급성장 시장에 대한 先占
  - 집권 後半期를 맞은 클린턴 行政府의 政治的 意圖
- (示唆點) 雙務的인 통상 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해외 정보의 수집과 수출 시장의 多變化가 必要

### (焦點)

- 최근 美國은 韓國에 대한 通商 攻勢의 強度를 높여가고 있음
  - 지난 2일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USTR의 바르세프스키 副代表는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통상전문지 *Inside U.S. Trade*紙 최근호에서 미국은 한국의 교묘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WTO에 제소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경고함
  - 14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95년 중점 정책의 제1순위로 해외시장 개방 정책을 꼽고 아시아-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역 개방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함
- 通信 裝備와 의료기기에 대한 市場 開放도 요구
  - AT&T의 최신 전자식 전화교환기의 한국통신 입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한국 시장 진출에 실패한 바 있음
  - 통신 장비에 대한 형식 승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고 입찰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, 이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AT&T사로부터 제소를 받아 불공정 행위 조사와 함께 무역 보복을 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경고함
  - 美國을 방문하고 있는 박재운 通商産業部 長官의 USTR 대표 및 상무장관과 면담과정에서 美國 측은 통신 장비와 의료기기에 대한 입찰 방식 개선을 요구
- 美 행정부뿐만 아니라 美 言論도 우리 나라의 개방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함
  - 특히, 월스트리트 지는 韓·美 양국의 무역 마찰이 最惡의 水準으로 치닫고 있어서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美國 정부는 한국을 WTO에 提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실음 (95.2.6일자)

- 美國의 通商 攻勢는 先進 開途國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
  - 美國의 개도국 길들이기의 성격이 강했던 美國과 中國과의 무역 분쟁은 美國의 개도국에 대한 攻撃的인 通商政策의 한 예라 할 수 있음
  - 최근 美 국제무역국(ITA)은 美國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가 수출전략(NES)을 수립하고 10대 급성장 시장(BEMs : Big Emerging Markets)을 집중 공략키로 하였음 (10대 급성장 시장 : 한국, 중국, 인도네시아, 인도, 터키, 남아공화국, 폴란드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멕시코)
  - 開途國에 대한 美國의 通商壓力은 技術 障壁 및 政府 調達 分野까지 확산
    - 미국표준기술원(NIST)은 10대 BEMs의 기술 장벽 실태 조사와 이들 국가에 대해 미상품에 대한 미국 검사결과의 수용 및 관련 무역 장벽의 철폐 추진
    - USTR은 각국의 정부 조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, 미국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나 불공정관행이 존재할 경우 해당국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

(原因)

- 美國 通商政策의 강경 선회는 美國의 對外依存도가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 貿易收支 赤字가 擴大되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
  - 美國의 대외의존도(GDP에서 상품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)는 94년에 18%에 달해 8%대였던 8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
    - 서비스 부문의 교역을 포함시킬 경우 대외 의존도는 27%수준임
  - 94년 11월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1,412억 달러로 史上 最大를 기록
    -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는데 美國 經濟가 牽引車의 역할을 담당할 만큼 그 코스트라 할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데 세계 경기의 회복에 덕을 많이 본 교역 상대국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

<美國의 主要國에 대한 商品 貿易收支(1994.1~11)> (단위:억 \$)

국 가	수 출	수 입	상품 무역수지
일 본	488.2	1,089.4	-601.2
중 국	84.9	359.6	-274.7
캐 나 다	1,043.1	1,175.5	-132.4
유럽연합	926.0	1,008.9	-82.9
한 국	161.4	179.2	-17.9
총 계	4,651.9	6,063.9	-1,412.0

자료 : 『日刊 海外市場』, 대한무역진흥공사, 95.1.28

주 : 美國의 무역수지 산정 기준은 우리와 다름. 우리 기준으로는 11월까지 대미 수출 183.9억 달러, 대미 수입 193.3억 달러로 대미 무역수지는 오히려 9.4억 달러 적자였음

- 美國이 絶對的인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環境·金融·情報 産業 등 高附加價値 産業에서 持續的인 優位를 確保, 維持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음
  - 이들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, 집중 공략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임
  - 急成長하고 있는 潛在 市場에 대한 先占도 최근 美國 通商 攻勢 強化의 원인임
- 執權 後半期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가 對外 關係에 있어서 좀 더 강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데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

## (示唆点)

- 美國 通商 攻勢의 強化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당장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
  - 通商産業部는 90년이래 美國과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通商 摩擦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문제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임
    - 그러나 美國의 통상 공세가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잠재 시장의 선점과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先進 開途國에 集中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입장은 修正되어야 함
- 通商 問題에 대해 WTO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止揚하고 雙務的인 對外 關係에 積極的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함
  - 무역 분쟁에 있어서 WTO를 통한 多者間 原則보다는 利害 當事國間의 雙務 協商이 우선한다는 것이 국제 관계의 현실임
    - 雙務的인 協商에 대비하기 위하여 협상 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통상 정보의 수집과 통상 전문 인력의 양성, 그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
  - 特定國에 치중되어 있는 輸出 市場을 多變化하기 위하여 企業의 潛在 市場 진출 등에 대해 금융·세제 상의 政策的 支援이 필요
  - 최근의 육류 유통 기한 폐지에 대한 여러 部處間의 相異한 立場 表明 같은 혼란을 피하고 일관성이 있는 政策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 내에 通商政策을 調整할 수 있는 機構의 設置가 필요

(이 보 성)